

‘바라보는 지점’ 장서백 개인전

DSAC 갤러리 라온 시리즈... 오는 11월 9일(토)까지 달서아트센터 갤러리 라온

(재)달서문화재단(이사장 이태훈) 달서아트센터에서는 오는 11월 9일(토)까지 월~금요일 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까지(일요일, 공휴일 휴관) ‘장서백 개인전: 바라보는 지점’을 개최한다.

2024년 ‘DSAC 갤러리 라온 시리즈’는 예술가로 성장하기에 가장 어려운 시기인 미술대학 5년 이내 졸업자를 대상으로 심의를 통해 7명의 작가를 선정하고 전시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역 미술의 미래를 이끌어 갈 대구·경북 청년작가들의 활동과 발전을 돕고자 기획했다.

지난 2024년 1월부터 장세림(동국대), 류은(대구대), 탁유진(안동대), woozi.p(대구예대), 박소진(대구대)에 이어 여섯 번째로 장서백(안동대) 작가의 작품이 전시된다.

‘바라보는 지점’이라는 제목으로 전시를 준비한 장서백 작가는 “살아가면서 직접 경험한 세상이 변화

는 순간이 있으며, 이런 변화하는 상황에서 오는 인식을 주제로 작품을 제작하고 있다. 나는 당연하다고 믿고 있던 것에 질문하게 됐고 작은 틈과 균열을 통해 다른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게 됐다.”고 말하며 작은 균열에서 보이는 틈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나아가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세상과 연결되기를 원하고 있다. 세상을 작은 틈으로 바라보거나 세상 속에서 작은 틈 안을 바라보며 각자의 경험과 인식을 긍정적인 사고로 전환하여 서로의 상처가 치유되길 바라는 작가의 순수한 마음이 캔버스 위 흑백의 배경 위에 녹아 있는 것이다.

장서백 작가의 전시는 단순한 사실적 표현을 넘어, 개인의 경험과 인식을 통해 세상과의 깊은 소통을 시도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한다. 작은 틈과 균열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일상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과 치유의 기회를 제시한다.



작가가 캔버스 위에 담은 흑백의 배경 속의 틈은 그가 직면한 내적 갈등과 변화를 반영하며, 이를 통해 관람자들도 자신만의 내면적 질문과 마주하게 한다. 결국, 이번 전시를 통해 각자의 상처와 경험을 예술로 승화하여 치유와 연결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따뜻한 공감의 장으로 형성되길 기대하는 것이다.

이번 전시를 준비한 달서아트센터 이성욱 관장은 “앞으로 작가로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번 전시가 새로운 모멘텀으로 작용하길 기대한다. 아울러 예술가로 성장하고 있는 작가들에게 지역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문의)053-584-8968

<자료제공:달서문화재단 달서아트센터>



‘현수하 개인전’ 시간의 밀도

10월 6일(일)까지 달천예술창작공간 1층

(재)달서문화재단(이사장 최재훈)이 운영하는 복합문화공간 달천예술창작공간에서 오는 10월 6일(일)까지 2024 달천예술창작공간 제4기 입주작가 ‘현수하 개인전_시간의 밀도’를 개최한다. 작가는 개인전 ‘시간의 밀도’에서 현대사회 속 생성과 사라짐을 반복하는 시간의 속도로부터 희미해져가는 삶을 회화로 표현했다. 본 전시는 달천예술창작공간 1층 공간에서

오전 10시~오후 6시까지 관람할 수 있으며 관람료는 무료다.



‘윤혜숙 개인전’ 나의 노래

10월 7일(월)~ 24일(목)까지 참꽃갤러리

(재)달서문화재단(이사장 최재훈)에서 운영 중인 참꽃갤러리에서 ‘윤혜숙 개인전_나의 노래’를 오는 10월 7일(월)~24일(목)까지(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주말, 공휴일 제외) 개최한다. 윤혜숙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 속에서 생명의 기쁨을 발견하고, 소박한 꿈을 꾸며 느낀 다채로운 감정을 고백하는 3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며, 전시

‘나의 노래’는 달성군청 내 참꽃갤러리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역사극 전문 채널

역사는 드라마다!

씨엔티브이

푸른방송 앞돌형 33-1 / 디지털 51번

중국 드라마 전문 채널

완벽 자막으로 즐기는 중드

채널차이나

푸른방송 앞돌형 56-1 / 디지털 121번

액션 영화 전문 채널

세계의 모든 액션을 즐겨라!

채널액션

푸른방송 디지털 98번

[주]씨엔티브이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3-1 대오빌딩 12층 | <http://www.cntv.co.kr>